

찬송가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2026년

설날 가정 예배



설 가정 예배 순서

※ 예배 전 유의사항

순서에 들어있는 '말씀나눔'은 같이 읽거나
각자 가정 상황에 맞추어 고쳐서 해도 좋습니다.

개식사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384장

다같이

기 도

맡은이

성경말씀

히브리서 11장 8 - 10절(신약 365쪽)

맡은이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나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은이

찬 송

545장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말씀나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의 첫 다짐이 조금은 흐릿해질 수 있는 2월의 중순, 우리는 설날을 맞이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믿음과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계획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삶의 운명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때로는 어둡고 막막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불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